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ssue Brief

2026. 7. 28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주요 이슈

Check Point

- 네이버 AI 인프라 사업 가시화
- SK 그룹, 글로벌 대규모 AI 협력 발표
- 삼성 SDS는 엔트로픽과 AX 파트너십

| Analyst 선유진 | yj.sun@ls-sec.co.kr

네이버, AI 인프라 사업 100억달러 투자 유치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주요 국내외 기업들간의 반도체, AI인프라, 피지컬AI 관련 전방위적인 협력이 구체화되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6/8 공개한 AI 팩토리 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에 따르면 네이버는 브룩필드가 조성한 9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2주간 브룩필드를 독점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협의가 최종 계약 성사로 이어질 경우 네이버는 엔비디아로부터 10억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약 4.5%를 투자 받게 된다.

이로써 네이버의 AI 팩토리 사업은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할 최종 엔드 고객사와의 계약만 마무리되면 퍼즐이 완성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28년까지 구축 예정인 200MW 규모의 AI 팩토리에 대해서 단일 고객과 계약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브룩필드와의 협상 기한인 12주 이내에 최종 고객사 계약도 확정 및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객사에 따라서 중장기 1GW 규모의 AI팩토리 사업 가시성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T, 엔비디아·엔트로픽·오픈AI·AWS와 AIDC 협력 강화

SK 그룹은 AI 메모리 역량을 동원해 보다 광폭 행보를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MS 등과 메모리 공급 협력을 강화했고,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인프라를 적용한 AIDC를 2GW 규모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AWS와 이미 진행중인 AIDC(울산) 구축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번 서밋에서 엔트로픽과 GW 규모의 추가적인 AIDC 구축 MOU를 체결했다.

SKT는 AIDC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SK하이퍼'를 설립하고 2030년까지 7,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2029년까지 5GW, 2035년까지 15GW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주요 AI 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의 AI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대규모 AIDC 및 반도체 관련 협력이 허황된 숫자가 아닌 실수요 기반임을 강조했다.

삼성SDS, 엔트로픽과 기업용 AI 시장 확대 협력

삼성SDS는 이번 서밋을 통해 엔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룹 관계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를 공급하고, 기업 내 클라우드 AI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엔지니어를 육성해 국내 시장에서 기업 고객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타 기업들과 달리 삼성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AIDC 구축 프로젝트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AIDC 공급 병목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AIDC 모라토리엄 사태까지 발생하며 미국 외 지역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SI 업체 가운데서 고성능 AIDC 구축 및 운영 역량을 갖춘 삼성SDS도 향후 글로벌 기업과의 AI 팩토리 프로젝트 협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호재, 그러나 중장기 협력이 실현되는지 모니터링 필요

주요 기업들의 투자, 협력 소식은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방증하는 호재로 판단하나, 중장기 관점에서 해당 협력과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구현되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 또한 엔비디아의 경우 자사 GPU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AI 컴퓨팅 자원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엔비디아의 의도적인 공급 확대를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표1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주요 협력 내용

국내 기업	글로벌 협력 기업	내용
삼성전자 삼성 SDS	브로드컴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 체결
	엔트로픽	AI 신규 시장 공동 발굴, AI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SK 그룹	엔비디아, MS 등	향후 5년간 7,500억달러 규모 첨단 AI 인프라 및 메모리 협력 확대
	엔비디아	최대 2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확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지원 및 최신 GPU 베라루빈 시스템 우선 할당 합의
	엔트로픽	국내 GW급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투자, 협력 MOU 체결
	AWS	기 진행중인 울산 AIDC 구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네이버	브룩필드	인프라 공급 계약을 통해 총 90억달러 규모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협의
	엔비디아	10억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엔비디아가 네이버 지분 전략적 투자 예정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공동 구축해 대학, 스타트업의 다양한 로봇 개발지원
	웨이모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계획 발표

자료: 청와대, 언론, LS증권 리서치센터

표2 AIDC 구축 비용 및 기대 매출 추정

(1GW 기준)	+0	+1	+2	+3	+4	+5
비용	70~90 조원 Capex 지출	14~18 조원 감상비	14~18 조원 감상비	14~18 조원 감상비	14~18 조원 감상비	14~18 조원 감상비
매출	-	20 조원	20 조원	20 조원	20 조원	20 조원

* B300 GPU 기준, 베라루빈 칩 감안 시 비용, 매출 추가 업사이드 존재

** GPU 대당 가격 약 1 억원, AIDC 내 IT 자원의 비용 비중 약 60% 추정 / 1MW 당 매출액 200 억원 추정

*** 램프업에 따른 점진적인 가동률 증가는 제한된 가정임

**** GPU의 실질적인 사용연한 감안 시 5년 이후에도 매출 발생 가능

***** AI 팩토리 사업 마진율 최소 10%~30% 범위 추정. 다만 전기·수자원 등 운영비용 감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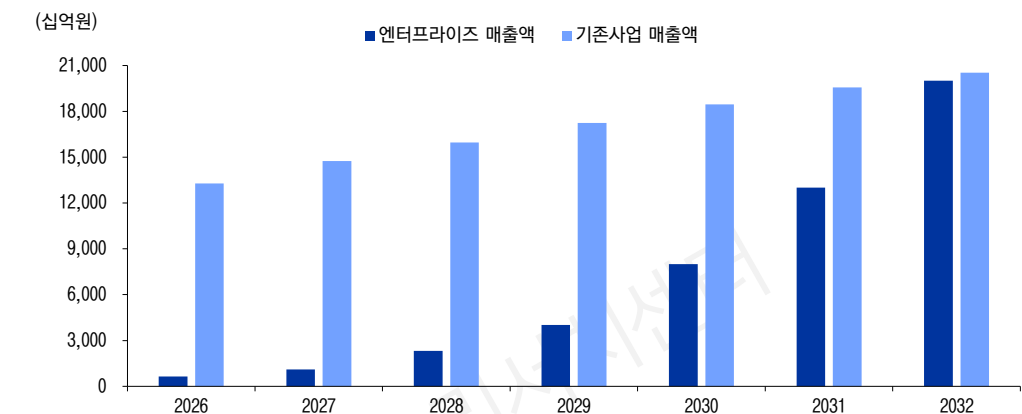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표3 NAVER 중장기 신규사업 주요 내용

단계별 AI 인프라 투자 계획
- 1 단계: 1H27까지 55MW 확보 (각 세종 및 임차 DC 상면)
- 2 단계: 2H27까지 누적 100MW 확보 (각 세종 및 임차 DC 상면)
- 3 단계: 2H28까지 누적 200MW 확보 (각 세종 및 임차 DC 상면)
- 이후~: 향후 5~6년 내 GW 규모 확보 (아시아, 중동, 유럽 등 그린필드 투자)
자금 조달 계획
- 200MW 규모에 대해서 브룩필드가 90억달러 규모 AI 인프라 조성, 엔비디아의 10억달러 전략적 지분 투자
- 중장기 GW 규모에 대한 자금은 SPV를 통해 외부에서 조달할 예정(1GW 기준 약 500~700억달러 추산)
매출 및 마진 가이드런스
- 5년 후 AI 팩토리 매출 목표 20조원
- 초기 마진 10%대 → 목표 마진율 20% 후반
엔비디아 협력 내용
- GTC 행사에서 공개한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통합 플랫폼 DSX를 활용해 인프라 운영 효율 개선(MW 당 더 많은 연산 자원 구현)
- 글로벌 고객 발굴 협력 및 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CoreWeave의 경우 일정 시점까지 판매되지 않은 연산자원을 엔비디아가 매입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 엔비디아 주도의 멀티모달 개방형 AI 생태계 네모트론 참여해 소버린 AI 고도화
- 피지컬 AI 및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분야 협력

자료: NAVER,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NAVER 중장기 매출 가이드선 추정



자료: NAVER,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삼성 SDS AI 데이터센터 증설 전망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동탄 DC 서관 20MW	단계적 가동	풀가동 추정 인 4,000억원					
구미 AIDC '29년 60MW + '31년 60MW				단계적 가동	풀가동 추정 인 1,2조원	2차 확장	인 2.4조원
한국 AICC (지분법 30%) '28년 40MW + '30년 40MW			단계적 가동	풀가동 추정 인 8,000억원		2차 확장 인 1.6조원	
DBO '31년까지 누적 500MW 확보							
합산 연매출	2,000억원	5,000억원	9,000억원	20,500억원	33,000억원	44,500억원	54,000억원
연결 매출액 기여 (지분법 제외)	2,000억원	5,000억원	6,000억원	12,500억원	22,000억원	28,500억원	38,000억원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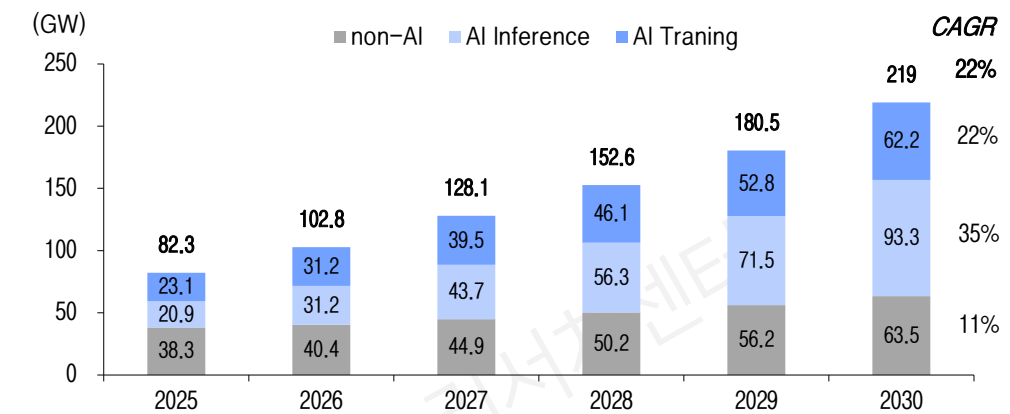
그림3 삼성에스디에스 중장기 투자 로드맵

	1단계 Foundation 성장 기반 구축	2단계 Acceleration 국내 AX사업 확장	3단계 AX Leadership 확보 글로벌 확장	2031년 누적 투자규모 10조원
① AI 인프라	구미 AI 데이터센터 국가 AI컴퓨팅센터 투자	AI 데이터센터 本格 가동	신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5조원
② AX-AI 서비스	Use Case 확산 AX 실행 체계 구축	Best Practice 확보 산업별 표준화 및 확산	End-to-End 서비스 확장 AI 실행 체계 선도	1조원
③ AI 플랫폼/솔루션	자체 플랫폼/솔루션 AI 기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에코시스템 확장	대내외 플랫폼/솔루션 연계 및 시너지 증대	
④ Inorganic 성장/신사업	삼성SDS-KKR 투자·M&A 협력 체계 구축 및 실행	투자·M&A 규모 확대	대규모·해외 M&A 집중 및 확장	4조원

* 사업 부문별 세부 투자 집행 시점과 금액은 수요/공급/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

자료: 삼성에스디에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글로벌 AI 워크로드별 수요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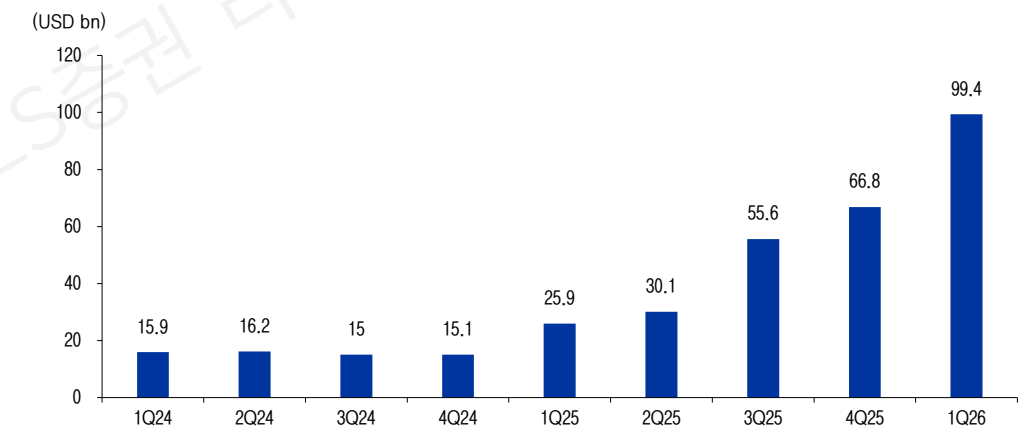
자료: McKinsey,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구글 AI 모델의 토큰 처리량 2년 사이 330 배 급증: AI 수요 성장은 견조



자료: Googl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CoreWeave 분기말 수주잔고 추이 - AI 인프라 수요 확대 추세



자료: CoreWeave,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선유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0.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pm 15\%$ 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9.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7. 01 ~ 2026.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